



특 집 _ 개교 100주년 맞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 임시정부 한인비행사양성소 조형물 제작
화 제 _ 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개최 위해 노력하겠다”
인터뷰 _ “재외동포 곁에는 항상 모국이 있습니다”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던 말입니다. 지금은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이나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씁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디아스포라와 우리가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디아스포라와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깊은 아픔과 수많은 사연이 있다는 것 역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소련은 연해주의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습니다. 이때 강제이주된 조선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조선인들의 자랑스러운 상징과도 같았지만 결국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카자흐스탄에 묻혀야 했습니다. 술한 조선인의 살갓을 뚫고 몸을 썩어 들어가게 했던 애니깁은 멕시코에서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강제 노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동포요, 핏줄인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이를 우리 국민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재외국민’을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민족의 뿌리로 크고 넓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여전히 한인으로 남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한데 모으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장**





- 02 권두언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 04 특집 개교 100주년 맞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
- 06 화제 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개최 위해 노력하겠다”
- 08 인터뷰 “재외동포 곁에는 항상 모국이 있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11 유공 동포 탄생 140주년 맞은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
- 12 글로벌 코리안 김채수 전 보츠와나 한인회장 선행에 감동
 도미 5년 만에 비행기숙학원 설립한 이광진 대표
 러시아정교회 최초의 한인 대주교 테오파니스 김
- 14 한민족 공감 1 여야 국회의원 힘 모아 한인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다
- 15 한민족 공감 2 도산 안창호 선생 말 수전 안 여사, 미 국무부가 ‘미국의 영웅’으로 소개
- 16 동포소식 캐나다 토론토 동포들이 펴낸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4탄 외
- 18 동포 캘린더 KBS 한민족방송 특별기획 ‘코리안 디아스포라’ 방송 외
- 19 주목! 차세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솔맛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20 지구촌 통신원 1 “아시아 1위 자랑만 있고 과거사 반성은 없었다”
- 21 지구촌 통신원 2 코로나19 공포에 생활고까지... 시름 깊은 중남미 한인들
- 22 동포문학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 ‘조명희 전집’ 증보판 출간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춘천교대와 ‘재외동포 이해교육 활성화’ MOU 외
- 25 기고문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Zionism)
 전후석 영화 ‘헤로니모’ 감독 / 재미동포 변호사
- 26 재단공지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개교 100주년 맞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 임시정부 한인비행사양성소 조형물 제막

노백린 · 김종림 손잡고 미국에서 독립군 조종사 양성



1



2



3

10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작은 농촌도시 윌로스 근교 벌판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사의 첫 페이지가 쓰였다. 우리나라 공군의 뿌리이자 공군사관학교의 모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비행사양성소(일명 윌로스 한인비행학교)가 문을 연 것이다.

설립 주역인 노백린 장군은 1875년 1월 10일 황해도 송화군에서 태어났다. 1895년 국비 장학생으로 뽕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도쿄의 게이오의숙과 세이조학교를 거쳐 일본 육군사관학교 11기생으로 입학했다. 1900년 귀국해 대한제국 장교가 된 뒤 육군무관학교장, 헌병대장, 육군 연성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노골화하자 안창호 등이 만든 비밀결사 신민회에 참여했다가 1910년 한일 강제합병 이후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이끄는 국민군단의 별동단 주임을 맡아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1916년 샌프란시

스코에서 태평양시보를 창간해 독립정신 고취에 나섰다.

제1차 세계대전의 추이를 관심 깊게 지켜본 노백린은 “앞으로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독립군도 비행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열정과 탁견에 감복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무 박임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정 지원에 나섰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노백린은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정 군무총장을 맡았다가 미국에서 박임대 주선으로 재미동포 김종림을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김종림은 1886년 함경남도 정평에서 태어났다. 1906년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 이민한 뒤 이듬해 캘리포니아로 건너갔다. 처음에는 철도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다. 공립협회에 가입해 공립신보 발간에 참여하고 국민회 법무원과 흥사단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농사에 뛰어난 수완을 보였다. 전쟁 특수 덕도 톡톡히 봤다. 소득의 90%를 지주가 떼가는 관습법 속에서도 한 해 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미국 신문은 그를 ‘쌀의 왕(Rice King)’이라고 소개했다. 임정에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는가 하면,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의 인쇄 기구 구매 자금도 기부했다.



4



5

노백린을 만나 비행사양성소 설립 자금으로 2만 달러를 지원한 뒤 매달 3천 달러씩 운영자금을 대기로 했다. 현지 신문 ‘윌로스데이리저널’은 1920년 1월 19일자 1면 머릿기사로 “쌀농사로 부자가 된 한국인 김중림이 한인 청년들에게 조종술을 가르치기 위해 비행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김중림은 활주로를 만들 16만2천㎡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2년 전 폐교한 쿼트학교도 사들였다. 교관 1명과 정비사 2명을 채용하고 학생 15명도 모집 해놓았다. 신한민보 3월 19일자는 “비행사양성소에서 비행술을 연습하기로 결심한 학생은 건장한 청년 24명”이라고 보도했다. 첫 비행기를 들여온 6월 22일에는 학생이 30명으로 늘었다.

7월 5일에는 동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교식을 열었다. 미국인 수석교관 프랭크 브라이언트가 시범 비행을 선보였다. 미국 레드우드 비행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비행사가 된 한장호 · 이용선 · 이초 · 오림 하 · 장병훈 · 이용근 등도 교관으로 합류해 후배를 지도했다.

임정 한인비행사양성소는 세 차례에 걸쳐 4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비행기에는 태극 마크와 함께 대한민국항공대(Korean Air Corps)의 영문 약자로 추정되는 ‘K.A.C’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운영 시스템과 커리큘럼도 체계화했고 정비, 무선통신, 군사학 등도 가르쳤다.

그러나 독립군 비행사들을 앞세워 도쿄 공습에 나서겠다는 노백린과 김중림의 꿈은 1년여 만에 좌절되고 만다. 1차대전 종전으로 곡물 특수가 사라진 데다 1920년 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대홍수가 일어나 김중림의 농장이 파산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운영비 지원이 끊어져 한인비행사양성소는 1921년 4월 문을 닫았다. 학생인 박희성 등 3명이 조종사 자격시험을 보다가 기체 사고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불행도 겹쳤다.

그 후로도 노백린과 김중림은 비행사양성소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으나 자금난과 일제의 방해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백린은 임정으로 돌아와 국무총리로 활약하다가 1926년 1월 22일 중국에서 숨을 거뒀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김중림은 1973년 숨졌고 2005년 애족장을 받았다.

박희성 등 한인비행사양성소 출신 일부는 중국으로 건너가 임정 독립군 장교로 활약했다. 중국과 일본의 비행학교를 졸업한 한인 비행사들도 독립



6

투쟁에 가세한 뒤 공군 창설의 주역이 됐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국립항공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임정 한인비행사양성소 개교 100주년에 맞춰 개관식을 거행한 것이다. 박물관 야외전시장에는 한인비행사양성소 훈련 모습을 재현한 기념 조형물도 세워졌다.

7월 14일 제막식에 참석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비행사양성소 조형물은 100년 전 국내외 동포가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려고 힘쓴 발자취를 후손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1. 1920년에 촬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사양성소 기념사진. '미국 가주(加州·캘리포니아주) 한인비행대, 로백린 장군 지휘하에'란 글귀를 적어놓았다.
2. 한인비행사양성소 훈련기에서 학생과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한인비행사양성소 개교 소식을 보도한 1920년 독립신문. 노백린 장군이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방문한 사진도 실었다.
4. 2017년 1월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헌정헌원 헌정관에서 열린 '노백린 장군 순국 91주기 추모식'에서 한 참석자가 현화한 뒤 경례하고 있다.
5.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에 세워진 임정 한인비행사양성소 기념 조형물. 1번 사진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제작됐다.
6. 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개최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EU 화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으로 비대면(언택트)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EU의 두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각각 스크린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양측은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EU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차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양국 정상이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동력) 유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세계 공공재가 돼야”

회담에서는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EU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보건 분야 협력을 모



1

색하기로 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 재건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경제 회복 전략에 포함하는 한편, 주요 20개국(G20) 행동계획에도 공조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다시 한 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면서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EU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



3



4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EU와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반도 긴장 높아진 것 심각하게 우려”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최근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앞서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가적인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미셸 상임의장은 “한반도 안정과 안보로 이어질 해법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EU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EU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데도 좀 더 전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과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유엔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둔화하는 데 매우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고 역설했다.

한국-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새 지도부와와 첫 정상회담이자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 연 양자 정상회담이다. 한국과 EU는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화상 정상회담도 한국이 선도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3월 G20 특별정상회의와 4월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었지만 다자회의가 아닌 공식 양자회담을 화상으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의 다자회의 때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의 대통령 책상 앞에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었다. 이번에는 격에 맞춰 본관 충무실에 별도의 회담장을 꾸렸다.

대통령 좌석 뒤에는 태극기와 EU 깃발과 함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했다. 스크린에는 EU 측 참석자가 현지에서 발언하는 화면은 물론 회담에 필요한 시각 자료도 띄워놓고 양국 참석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정면에도 대형 스크린을 배치했고 바닥에는 카메라가 이동할 수 있는 레일을 깔았다.

대통령 양옆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배석자 사이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 이처럼 꼼꼼하게 최첨단 화상 회담장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비대면 정상 회담 시스템도 한국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참]**

1. 6월 30일 열린 한국-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크린을 보며 발언하고 있다.
2.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3.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스크린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4. EU의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왼쪽)과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 곁에는 항상 모국이 있습니다”

입양동포에 마스크 37만 장 전달... “국내외 동포 힘 모아 평화통일로”

해외로 입양된 동포들에게는 얼마 전 가슴 뭉클한 일이 일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자신을 잊은 줄 알았던 모국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가 배달된 것이다. 마스크가 담긴 은색 포장지에는 재외동포재단 명의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란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다.

이를 받아본 입양동포들은 “기억해줘서 감동했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다”, “모국과의 끈을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도 모국과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 “마스크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 등의 소감을 전해왔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오다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는 싸늘한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 입양동포들을 울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창’ 편집진이 6월 26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의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입양동포에게 마스크를 보낸 취지를 묻자,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해외 입양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나 자기 뜻과 무관하게 외국으로 보내져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300여 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됩니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이처럼 해외 입양을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이제부터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생각에 외교부와 함께 5월 말부터 14개국 42개 입양인 단체를 활용해 마스크 37만 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스크 구입, 포장, 발송 등에 모두 5억 원이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해외 입양동포를 지원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라면서 “앞으로 입양동포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1958년부터 입양인 통계를 수집한 이래 지금까지 해외 입양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6월 24일 방송된 KBS 1TV 6·25 전쟁 70주년 특집 '어느 재외동포의 헌신, 나는 모국을 위해 싸웠다'에 출연해 고 김영옥 대령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다.

동포 수는 16만7천여 명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방 후부터 6·25를 거쳐 1958년 이전까지의 해외 입양인이 3만~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죠. 이를 합치면 모두 20만 명에 이르고, 2세와 3세까지 포함하면 50만 명은 넘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해외 입양인을 위한 예산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다 합쳐도 20억 원에 못 미칩니다. 정부의 한 해 예산이 500조 원에 이르고 출산장려금만 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배려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수장을 맡은 한 이사장은 2017년 10월 취임한 후 인권사업팀을 신설(2020년 인권사업부로 확대 개편)해 해외 입양동포와 베트남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등 그 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을 돕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한국 국적의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되돌아간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

■ 고교용 선택과목 교과서 ‘세계 속의 한인’ 8월 발간

이와 함께 한 이사장은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신는 것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칭)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한우성 이사장이 해외 입양동포에게 마스크를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왔다.

“교육으로 국민의 재외동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취임 직후 알아보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는 ‘재외동포’란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도 비슷한 사정이었죠. 고맙게도 교육부가 재외동포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윤동주·최재형·안창호 등을 재외동포로 표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각에서 반론을 제기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첫발을 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이 먼저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물부터 재외동포로 수록한 뒤,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면 계속 추가할 수 있겠죠.”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위한 고등학교용 교과서 ‘세계 속의 한인’도 오는 8월 처음으로 발간돼 내년 1학기부터 서울 관악구 구암고등학교 등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중학교용 ‘동행해요! 세계 속의 한인’ 교과서도 올 12월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2022년 초·중·고 교육과정의 각 과목 집필 기준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외교부 장관 명의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한다.

■ 서울 마곡지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시동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천458㎡(441평)의 대지에 8층 규모로 건립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재단의 숙원 사업이다. 역대 이사장들이 대지를 물색하고 예산을 확보하느라 부심하다가 한 이사장이 와서 첫단추를 끼웠다. 2022년 상반기 건물 준공, 20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동포들도 48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으면 전체 공사비 240억 원을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천200만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재외동포 2세·3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모국과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내국인 젊은이에게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배우고 재외동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교육공간이 절실하죠.”

중국·이스라엘·아일랜드·독일·폴란드·일본·인도 등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많은 나라는 모두 비슷한 목적의 전시관이

나 교육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정부가 마련한 재외동포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한 이사장은 건물이 들어선다 해도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산을 확보해 유물과 자료 등을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여파로 재외동포 행사도 줄줄이 무산·축소

한 이사장은 1987년부터 30년간 재미동포로 살며 198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일보 LA지사 기자로 활동했다. 1992년 'LA 흑인 폭동'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5월 25일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촉발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누구보다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봤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뿌리 깊은 흑백 갈등의 구조 속에서 소외 집단이나 약자를 속죄양으로 삼아왔습니다. 1965년 LA 와츠 폭동 때는 유대인이 표적이었고, 1992년에는 재미동포가 희생된 거죠. 이번에는 파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위험합니다. 한인사회가 28년 전보다 발전하고 성숙한 덕분에 피해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은 문을 닫아걸고 있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심해지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곳곳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주민이나 귀환 동포에 대한 경계심과 거부감이 늘어나는 추세다.

재외동포재단도 재외동포 초청 행사나 각국 한인단체 행사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10월 전후로 예정된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



한 이사장이 “국내외 동포가 서로 소통하고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해외 입양인 모국 초청 행사 등의 개최가 불투명한 형편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권역별 온라인 개최 등의 방식도 모색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인류 역사를 더듬어볼 때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문명이 발전해왔듯이 당장은 무역이 줄어들고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어도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 추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 이사장, 책 집필로 김영옥·노백린 장군 알러

한 이사장은 6월 24일 KBS 1TV 6·25 전쟁 70주년 특집 ‘어느 재외동포의 헌신, 나는 모국을 위해 싸웠다’에 출연해 재미동포 미군 참전용사 고 김영옥 대령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 이사장은 2005년 김영옥 전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을 펴냈다.

지난 7월 5일은 임시정부 노백린 장군과 재미동포 김종림이 세운 임정 한인비행사양성소(월로스한인비행학교)가 개교식을 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 이사장은 2013년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란 저서로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가 된 월로스비행학교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재외동포는 조국이 지켜주지 못해 외국으로 끌려가거나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등을 맞아 국권을 되찾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60~1970년대 경제성장기나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힘을 보탰죠. 이런 전통이 이어져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



한우성 이사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2019년 10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탄생 140주년 맞은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

4개국 넘나들며 국어학·역사학 분야 숱한 저서 남겨

2019년 4월 21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국제공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독립유공자 계봉우 선생의 유해 봉환식이 열렸다. 계 선생은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다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 실려 6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서울공항에 도착한 계 선생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계봉우 선생은 1880년 8월 1일 함경도 영흥에서 출생했다. 올해로 탄생 140주년을 맞았다. 함흥 영생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동휘 선생을 따라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해 국군계몽운동에 투신했다. 1910년 한일 강제합병이 이뤄지자 이듬해 중국 북간도로 망명해 연해주를 오가며 민족교육과 항일투쟁에 헌신했다.

이상설, 이동휘가 주도하던 대한광복군정부의 책임비서로 활동하는가 하면, 교회와 학교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던 중 1916년 11월 일제 영사관 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돼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운동을 맞았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북간도 대표위원으로 부임해 1년간 의정 활동을 했다. 이동휘와 함께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 창당에 참여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에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한인단체들의 내분에 휩싸여 1921년 이르쿠츠크 감옥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연해주의 한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했다. 선생도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 크질오르다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1959년 6월 5일 눈을 감았다.

선생은 독립운동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도 왕성한 집필·저술 활동을 벌였다. 북간도에서는 월간지 '대진'의 주필, 연해주와 상하이에서는 각각 '권업신문'과 '구국일보' 기자, 시베리아에서는 한글잡지 '새 사람' 주필 등을 역임하며 숱한 논설과 시문을 남겼다.

역사 교재 '신한독립사'와 '조선역사', '우리의 원수를 잊지 말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계봉우 선생의 유해가 2019년 4월 22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봉송되고 있다(위). 젊은 시절의 계봉우 선생 모습

자'는 뜻으로 제목을 지은 초등학교 교과서 '오수불망(吾讐不忘)', 한인이주사와 항일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 사료로 쓰이는 '북간도 그 과거와 현재'와 아령실기(俄領實記), 그리고 여성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전기 '김알렉산드라 소전' 등이 대표 저작이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할 때는 소련 정부가 철저히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이두집해(吏讀集解)', '조선문법', '조선말의 되어진 법', '북방민족의 말' 등 국어학 분야에 독보적인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선생의 업적은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고, 한국과 국교가 열리기 전까지는 주요 저술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야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 그해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아들 계학림 씨가 내한해 '이두집해' 등의 원고를 처음 공개했다. [▶](#)



김채수 보츠와나 전 한인회장

아프리카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빛’ 선물 김채수 전 보츠와나 한인회장 선행에 감동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공화국에 33년째 거주하는 김채수 씨가 현지 시각장애 청소년 3명의 개인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훈훈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보츠와나 한인 회장을 4차례나 지냈고 현재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가보로네지회장을 맡고 있다.

수술은 7월 9일 가보로네 카롱클리닉에서 진행돼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튿날 모세 키타일 보츠와나 보건부 부차관과 투미상 힐리 가보로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병원을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현지 언론 ‘보츠와나 데일리 뉴스’는 이 소식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개인수술비를 부담하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김 지회장은 모세 부차관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2천 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월드옥타 LA지회(지회장 최영석)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 지회들에 기증한 것이다.

모세 부차관은 “코로나19로 모두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도 김 지회장이 선뜻 수술비를 쾌척해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사정이 허락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빛’을 선물해 주겠다”고 밝혔다.

전남 곡성 출신인 김 지회장은 인구 235만여 명 가운데 한인 110명이 사는 보츠와나에 1987년 진출했다. 대우건설 보츠와나 도로 건설 현장에서 2년간 일한 인연으로 1991년 가보로네에 ‘김스 오토’란 이름의 자동차 정비공장을 차렸다. 뛰어난 기술과 함께 “출근하면서 차를 맡기면 퇴근길에 찾아갈 수 있다”는 영업 전략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었다. 현재 보츠와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가운데 그의 손을 빌리지 않은 차가 드물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은 자동차 정비를 그만두고 건설업·무역업·컨설팅업을 하며 이언 카마 전 대통령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보츠와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보츠와나 주니어 테니스대회’를 주최하고, 보육원과 불우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내놓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도미 5년 만에 비행기숙학원 설립한 이광진 대표 자서전 ‘플라이 하이’ 펴내고 아프리카 아동도 후원

미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미국 비행기 조종사와 비행학교 교관이 되고 비행기숙학원까지 차린 젊은이가 있다. 한국식 나이로 32살인 이광진 씨는 최근 자신의 좌절과 성공 이야기를 담은 책 ‘플라이 하이’를 펴냈다.

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고뭉치였다. 부모는 정신 차리라며 아프리카 중서부 라이베리아로 보냈다. 수도 몬로비아에 선교센터가 세운 중학교를 다니다가 내전이 격화해 1년 만에 귀국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베이스기타를 배워 대구예술대에 합격했다. 휴학 후 콘트라베이스로 전공을 바꿔 네덜란드 왕립음악학교 ‘프린스 클라우스 콘서바토리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어렵게 얻은 유학 기회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트럼펫으로 전공을 바꾸려고 중도에 귀국했다. 군악대 트럼펫 주자로 군복무를 마쳤다.



전역 후에는 계명대 경영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라이베리아와 네덜란드에서 익힌 영어를 무기로 학원 강사와 과외 교사를 하며 영어학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재미동포 2세를 만나 결혼했다. 부인과 함께 2015년 처가가 있는 미국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로 건너갔다. 애리조나는 날씨가 건조해 비행학교가 많았고 한국인 학생이 몰려들어 있었다. 그도 비행학교에 입학해 2018년 1월 파일럿 자격을 취득했다. 내친김에 비행교관 자격에도 도전해 합격했다.

곧바로 비행학교 '플라이 굿이어' 교관으로 취업해 일하다가 한국인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영어 과외도 병행해 학교 적응을 돕는 학원 '플라이 하이'를 차린 것이다. 그의 사업 수완 덕분에 '플라이 굿이어'도 한국인 학생이 급속히 증가해 비행기를 2대에서 15대로 늘렸다.

그는 비행교관이 된 이래로 3년째 라이베리아의 초등학교에 운영비를 보태거나 학용품·교육용 기자재 등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비행학교를 세우고 라이베리아에 초등학교를 짓는다는 꿈도 익어가고 있다.



비행기숙학원 '플라이 하이' 이광진 대표

러시아정교회 최초의 한인 대주교 테오파니스 김 투바공화국 키질교구장과 신설 남북한 교구장 겸임

사할린 동포 3세가 러시아정교회 고위직 사제가 되어 동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의 한인과 러시아인 신도들의 영적 생활을 이끌고 있다. 테오파니스 김 대주교는 2017년 대주교 서품을 받고 동시베리아 남부 투바공화국 수도인 키질교구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2019년에는 남북한 내 러시아정교회 신도를 관할하는 대한교구장 자리에도 올랐다.

정교회는 가톨릭·개신교와 함께 세계 기독교(그리스도교) 3대 교파로 꼽힌다. 러시아는 볼셰비키혁명 이후 한동안 신앙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정교회 전통의 뿌리가 깊다. 현지인 대부분이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러시아정교회에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있다. 러시아정교회에는 동포 신부가 10명가량 있으며 대주교에 오른 것은 김 대주교가 처음이다.

그는 1976년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10대 후반에 우연한 계기로 러시아정교회 신자들을 만나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영성을 체험한 뒤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김 대주교는 2000년 9월 한국의 러시아정교회 신도들을 위해 한국에 파견됐다. 2006년 5월에는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정교회 역사는 1900년 러시아인 신부에 의해 시작됐으나 러·일전쟁과 볼셰비키혁명을 거치며 단절됐다. 1951년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그리스 군종신부가 명맥을 이어 1955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관할로 편입됐다. 남·북미관구, 뉴질랜드관구에 속해 있다가 2004년 한국관구로 독립했다. 정교회는 로마 교황이 수위권(首位權)을 갖는 가톨릭과 달리 콘스탄티노플·그리스·러시아·세르비아 등의 정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러시아정교회는 2018년 12월 주교회의(시노드)를 통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동남아시아와 남북한을 관할하는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구를 신설했다. 지난해 2월에는 총대주교대리구 산하에 대한교구를 별도로 두었다. 



러시아정교회 키질교구장 테오파니스 김 대주교



여야 국회의원 힘 모아 한인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다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발족... 무역협회 · 코트라 ·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가세

세계 각국 한인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이 7월 7일 발족했다. 정회원 12명과 준회원 31명 등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참여했으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이 포럼의 대표와 부대표를 나눠 맡았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수출입은행 등 24개 기관은 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원석 한컴MDS 사장)를 구성해 돕기로 했다.

포럼의 결성 취지는 세계 한인 경제인 지원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고국과 재외동포 거주국 도시 간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2002년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이 전신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창립 행사에는 이원욱 대표 · 김석기 부대표와 강득구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 김영주 · 김병욱 · 유동수 · 문진석 · 권칠승 · 맹성규 · 박재호 · 박찬대 · 조웅천 · 양향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진 · 이명수 · 추경호 · 김병욱 · 김승수 · 김희곤 · 신원식 · 양금희 · 최승재 · 하영제 · 홍석준(이상 미래통합당),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월드옥타의 하용화 회장, 이영현 · 천용수 · 김우재 · 박기출 명예회장, 상임이사과 회원 등 60여 명과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안경률 · 김성곤 전 의원 등도 자리했다.

이원욱 대표는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공공외교로서의 격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고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대공황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국회와 월드옥타가 힘을 합쳐 수출 판로를 모색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해외 차세대 지원 육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위).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이원욱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은 "월드옥타는 61개국 141개 지회 3만여 명의 회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국의 경제 발전과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윤원석 공동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월드옥타 회원들은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로 자리를 옮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월드옥타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대회를 열었다.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경제 전망: 접촉에서 접속으로'라는 주제로 특강한 데 이어 2020년 월드옥타 주요 사업과 일정 소개, 월드옥타 온라인 플랫폼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이날에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자문위원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창**

도산 안창호 선생 딸 수전 안 여사 미 국무부가 '미국의 영웅'으로 소개

아시아계 여성으로 첫 해군 장교

미국 국무부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수전 안 커디(한국명 안수산) 여사를 '미국의 영웅'이자 '아시아계 미국인의 선구자'로 소개했다.

국무부는 6월 초 웹사이트 셰어 아메리카(share.america.gov)에 안 여사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 미국의 외교정책을 알리고 각국 누리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공공외교 플랫폼이다.

셰어 아메리카는 안 여사를 '미국의 주목할 만한 여성'에 포함시키며 한국 독립운동가인 안창호 선생과 헬렌 안(이혜련)의 장녀라고 소개했다. 이어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해군에 입대했으며 미군 내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이자 해군에서 중위 계급을 단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셰어 아메리카는 안 여사가 수십 년 군 복무를 하고 은퇴한 뒤 미국 한인사회의 옹호자로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1915년 캘리포니아 LA에서 태어난 안 여사는 11세 때 도산 선생이 독립운동 단체 통합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나면서 부친과 생이별했다. 고교 시절에는 필드하키와 야구 등을 즐기며 뛰어난 운동 실력을 뽐냈고 샌디에이고주립대를 졸업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훌륭한 미국인이 되거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부친의 영향을 받아 안 여사도 신한민보와 흥사단, 3·1 여성동지회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에 힘썼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며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거부당하면서도 사관 후보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임관 후에는 당시 고정관념을 깨고 전투병과를 지원했다.



만년의 수전 안 커디 여사(좌), 미국 국무부 사이트 셰어 아메리카에 소개된 미국 해군 장교 시절의 수전 안 커디 여사.

안 여사는 군에서 만난 아일랜드계 프랜시스 커디와 1947년 결혼했다. 인종간 금혼법이 있던 시절이어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위로 예편한 뒤 국가안보국(NSA) 등에서 비밀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다.

중년 이후에는 LA 파노라마시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재미 동포 권익 신장과 부친 기념사업 등에 매달렸다. 2003년 자서전 '버드나무 그늘 아래'를 펴냈고 100세를 맞은 해인 2015년 LA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5월을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할 때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의 자손들은 미국의 발전과 인종의 다양성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안 여사의 삶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민한 첫 한국인 부부의 딸인 수전 안 커디 여사는 큰 시련에 맞서면서도 확고한 직업윤리, 깊은 애국심, 소명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 나라를 드높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창**

캐나다 토론토 동포들이 펴낸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4탄

심훈 · 윤동주 · 주기철 · 황애덕 · 최익현 등의 발자취 답아

캐나다 토론토의 애국지사기념사업회(회장 김대역)가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신세림 간)를 국내에서 발간했다. 2014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네 번째다. 2010년 3월 창립한 이 단체는 애국지사 초상화를 제작해 동포사회에 헌정하고, 애국지사를 주제로 한 문예 작품을 공모해 시상하는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번 호는 항일문학가 심훈, 민족시인 윤동주,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 여성계몽운동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황애덕, 최고령 의병장 최익현, 역사에 묻힌 재미 독립운동가 박용만, 고종 황제가 신임한 한국인의 친구 호머 헐버트 등 8명에 초점을 맞췄다. 김대역 회장을 비롯해 김정만 · 백경자 · 최봉호 · 김제화 · 박정순 · 홍성자 씨 등이 나눠 집필했다.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표지와 김대역 애국지사 기념사업회장.

이윤옥 시인이 남자현 · 안경신 등 여성독립운동가 13명을 기린 연작시와 강한자 글로벌코리아 발행인, 김미자 전 은퇴 목사회(은목회) 회장, 이재철 은목회 총무, 조경옥 사협회 이사, 최진학 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회장 등이 쓴 '후손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각각 특집으로 꾸몄다. 동화작가 김일옥이 지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도 수록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의 생애를 1인칭 시점으로 그려냈다. 김제화 선교사는 '중국 조선족은 항일독립운동의 든든한 지원군'이란 글을 기고했다.

애국지사기념사업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재외동포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후손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애국지사 이야기'를 계속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여름마다 수난 겪는 이상설 유허비를 지키자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과 한국기업 손잡아

해마다 여름 장마에 수몰되던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한국 기업 · 주재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라즈돌나야강변에 세워진 유허비와 주변 시설물이 강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7월 1일 구조물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다지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광복절 이전에 유허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01년 10월 18일 광복회와 고려학술재단은 이상설 선생의 유골이 뿌려진 강변에 폭 1m, 높이 2.5m의 화강암으로 유허비를 세웠다. 그러나 2015년 이래 여름철마다 연례행사처럼 범람한 라즈돌나야강물에 침수되곤 한다. 이때 시설물의 토사가 물살에 깔여 나가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이 밀려와 유허비 주변을 더럽힌다.



라즈돌나야강변에 세워진 이상설 유허비.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극동영농지원센터가 2014년부터 봉사활동 차원에서 연해주 진출 기업들과 주기적으로 유허비 주변을 청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허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설 선생은 1907년 이준, 이위중 선생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밀사로 참석해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17년 순국했다.

그는 "조국 광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라며 "내 몸과 유품, 유고는 모두 불태워 강물에 흘려보내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유언했다.

코로나19로 숨진 터키 참전용사에 추모패

“아버지는 한국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셨죠”

지난 5월 터키의 6·25 전쟁 참전용사 타흐신 가지오을루 씨가 숨을 거뒀다. 사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주이스탄불 한국총영사관은 7월 14일 재터키한인회,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사업회와 함께 가지오을루 씨와 4월 별세한 참전용사 이브라힘 세르텔 씨의 유가족에게 추모패를 전달했다.

주이스탄불 총영사관이 6·25 참전용사의 유족에게 추모패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영사관은 지난 6월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터키 참전용사협회에 마스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가지오을루 씨와 세르텔 씨가 별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모패를 제작했다. 당초에는 유족에게 직접 수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전달식을 개최했다.



참전용사 타흐신 가지오을루 씨의 아들 무라트 가지오을루 씨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추모패를 펼쳐 보이고 있다.

장영주 총영사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저희가 마스크를 전달하기 전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더 안타까웠다”며 “늦게나마 아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추모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가지오을루 씨의 아들 무라트 가지오을루씨는 “아버지는 한국을 좋아하셨고 한국에서의 추억을 자주 말씀하셨다”며 “이렇게 추모패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 총영사는 “아버님 같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인은 항상 참전용사께 감사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타흐신 가지오을루 씨는 제1 터키여단 소속으로 1950년 10월부터 1년간 6·25 전쟁에 참전했다.

재미 한인 2세들의 훈훈한 ‘깜짝 변신’ 봉사 이벤트

노숙자를 할리우드 배우처럼... “희망 찾아줘 감사”

미국의 한인 2세들이 LA의 노숙자를 할리우드 배우처럼 꾸며주는 ‘깜짝 변신’ 이벤트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상제작 프로듀서, 전문 사진가로 일하는 한인 2세들은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홈리스 메이크 오버’ 영상 제작에 나섰다.

이들은 첫 작품으로 7월 14일 유튜브 채널(<https://youtu.be/z2j7na1Nr4i>)에 LA 노숙자 언티 그린이가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변신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린은 한때 번듯한 요리사였으나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살 곳을 잃었고, 5년 전부터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

한인 2세들은 시내 콘도를 빌려 그린의 머리를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화장해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꽃무늬 원피스와 스카



‘깜짝 변신’ 이벤트의 첫 주인공이 된 LA 노숙자 언티 그린.

프, 모자를 걸친 채 거울 앞에 선 그린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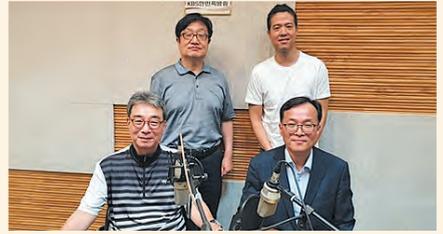
그린은 미리 마련된 롤스로이스를 타고 샌타모니카 해변을 드라이브했고, 한인 2세들과 함께 한인타운의 레스토랑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린은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아름답고 희망이 있던 20대 시절을 떠올렸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인 2세 헤어 디자이너 정진욱 씨는 평소 노숙자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 그는 “노숙자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KBS 한민족방송 특별기획 '코리안 디아스포라' 방송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한민족 하나로'는 7월 18~19일 2부작 특별기획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방송했다. 제1부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디까지 진행됐나', 제2부 '나도 한국인인가요'란 주제 아래 재외동포 이주사와 현주소,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고민 등을 짚어봤다. 원종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고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 영화 '헤로니모'의 전후석 감독, 정수진 리포터가 출연했다.



일본 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항 시행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공개적인 혐오 표현)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사례다.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길거리·공원 등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혐오 표현을 말하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 등도 규제 대상이다. 위반시 50만 엔(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카자흐스탄 신임 보건부 장관에 고려인 알렉세이 초이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방역 대책을 지휘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옐잔 비르타노프 보건부 장관을 6월 25일 해임하고 후임으로 고려인 알렉세이 초이 보건부 1차관을 임명했다. 초이 신임 장관은 외과 의사 출신으로 보건부 차관을 지내고 수도 누르술탄(옛 아스타나) 최고의 종합병원인 대통령실 산하 의료센터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비르타노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보건부 1차관으로 복귀했다.



뉴질랜드 웰링턴 신임 한인회장에 이장흠 씨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한인회의 제15대 회장에 이장흠 씨가 7월 15일 취임했다. 이 회장은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해 9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그는 "만여 명이 거주하는 웰링턴 한인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3년 웰링턴에 정착해 유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9대와 10대 한인회 부회장과 재무를 각각 맡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씨엠립한인회,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한인 가정에 긴급 구호품 전달

캄보디아 씨엠립한인회(회장 박우석)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한인 가정에 쌀·라면·계란·고추장·화장지 등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는 캠페인 '함께라면'을 펼치고 있다. 이곳 한인인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는데, 앙코르와트를 찾는 발길이 끊겨 90%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 한인 수도 1천300여 명에서 800여 명으로 급감했다. 한인회는 모금운동을 벌여 7월 말부터 170여 가구에 매달 한 차례씩 3개월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드니 한인상가에 동포들이 출자한 은행 지점 생긴다

호주의 '벤디고 애들레이드 커뮤니티은행(벤디고 은행)'이 동포들의 출자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에 시드니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이스트우드에서 지점을 개설한다. 17년 전 동포들이 주축이 돼 개설한 스트라스필드 지점에 이어 두 번째다. 1858년 창립한 호주 굴지의 벤디고 은행은 호주 전역에 400여 개 지점을 두고 있다. 이스트우드 지점에는 지금까지 235명이 주주로 참여했고 주식 총액은 155만 호주 달러(약 13억 원)인데, 주주의 90%가 한인이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술맛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재미동포 보디빌더이자 주류 도매업체 대표 권승준

미국 콜로라도의 주점(리커스토어)에 한국 술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체 오스트 아메리카는 7월부터 덴버와 콜로라도 지역 주류 시장에 ‘화요’, ‘대선’, ‘한라산’, ‘금복주’, ‘명작 복분자’ 등 한국 술을 공급하고 있다.

권승준(영어명 준 권 · 44) 대표는 “백인이 90%를 차지하고 동양인은 찾아보기 힘든 지역에서 한국 술을 판다는 자체가 뿌듯한 일”이라며 “이곳에도 K-팝, K-드라마를 앞세운 한류의 영향이 커 한국 술도 잘 팔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덴버 메트로 690여 개, 스프링스 200여 개 등의 리커스토어에 한국 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빠르게 광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각 제조회사가 만든 광고 포스터를 술집에 붙여놓으면 고객이 한국 모델들을 알아보고 호기심을 표시한다고 한다.

한국 술 유통을 위해 권 대표는 2012년 자신의 이름 영문 머리글자를 딴 주류 도매업체 SJK(주)를 설립하고 직접 주점 두 곳을 운영했다. 대형화 추세를 따라 회사 몸집 키우기에 급급하다가 부실해지는 동종업체의 사례를 보면서 무리한 확장보다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 운영을 택했고, 신용 있는 회사로 키웠다.

권 대표는 이를 기반으로 영업력, 추진력, 고객 서비스에 중심을 둔 판매 전략을 내세워 한국 술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올해 말까지 60만 달러어치를 유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보디빌더 챔피언이기도 하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지만 한국 술과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8일 ‘NPC 콜로라도 덴버 오픈 2020’(마스터스 멘스 피지크 42~50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18세 이상



NPC 콜로라도 덴버 오픈 2020에서 우승한 권승준 오스트 아메리카 대표

이 참가하는 ‘오픈 클래스’에서는 2위에 올랐다. NPC는 세계 최고 권위의 보디빌딩 · 피트니스 단체인 ‘보디빌딩 & 피트니스 국제연맹’(IFBB)의 협력 단체다.

권 대표는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없이 자택 지하실에 운동 기구를 설치한 뒤 독학으로 근육을 만들어 우승까지 했다.

그에게 운동은 친숙하다. 대학 때까지 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부상으로 포기한 아픔을 겪었다. 무산된 축구 선수의 꿈을 공부와 보디빌딩으로 채웠다. 현재 재미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경희대 스포츠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거쳐 2005년 미국에 건너갔다. 누나가 운영하던 후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며 현지 문화를 체득했다. 이민 10여 년 만에 900여 개의 리커스토어와 리커 라이선스가 있는 레스토랑, 바(Bar) 등에 한국 술을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아시아 1위 자랑만 있고 과거사 반성은 없었다”

국제사회 약속 저버린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방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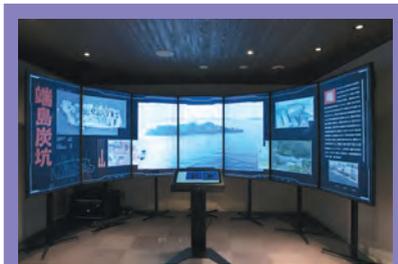
일본은 2015년 나가사키(長崎)현 하 시마(端島·일명 군함도) 등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인의 강제 노역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알리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세계유산위원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이를 지키기는커녕 한국인을 차별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소개하는 등 역사 왜곡을 시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꾸며놓았는지 확인하고자 7월 1일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구 총무성 제2청사 별관 1층에 1천 78㎡ 규모로 들어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찾았다.

제1구역에 들어서자 한국인 징용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대사의 발언이 적힌 패널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갔다. 그러나 정작 그에 관한 전시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구미의 산업혁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길에 오른 5명의 젊은이 사진도 눈에 들어왔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다.

2구역에선 대형 화면과 패널을 통해 조선, 제철·철강, 석탄 등 분야별로 메이지 시대의 산업 현황을 전시해놓았다. 한국



일본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실의 대형 화면에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소개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실에 하시마(군함도) 탄광에서 일한 노동자와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三菱)는 그 시대 대표 기업으로 소개돼 있었다.

마지막 3구역에 하시마 탄광에서 일한 노동자와 가족의 사진들이 전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초 약속대로 조선인 징용 노동자의 희생을 기리기보다는 노예노동이 없었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군함도에

서 보낸 재일동포 2세 스즈키 후미오(鈴木文雄) 씨의 증언 영상이 대표적이다. 스즈키 씨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귀여움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채찍으로 맞았냐”는 질문에 “당시 조 금이라도 탄을 많이 캐는 것이 나라의 정책인데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회’의 마쓰모토 사카에(松本榮) 명예회장이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증언도 소개해놓았다. 군함도 탄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어서 일본인과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시실 한쪽에 놓인 책장에는 이영훈 씨 등이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 일본어 판이 꽂혀 있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발전을 이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독도 영유권이나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해서도 일본 측의 주장을 지지해 논란을 빚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시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했다는 자랑만 있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주변국에 피해를 준 역사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것이다. **창**

김호준 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코로나19 공포에 생활고까지... 시름 깊은 중남미 한인들

확진·사망자 속출하고 폐업 줄이어 역이민 고려

중남미의 코로나19 위기가 깊어지면 서 이곳에 사는 한인들의 불안과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7월 14일 기준으로 중남미 33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8만3천941명, 사망자는 14만5천690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중남미 인구 비중은 8%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26%를 차지한다.

중남미엔 10만3천617명(2019년 외교부 통계)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데, 한인들의 확진과 사망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확진자 국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인이 많은 나라에선 많게는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에는 현지 보건부 최근 통계에 한국 국적으로 표기된 확진자가 13명 포함돼 있다. 공식 통계가 없는 브라질, 과테말라,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도 한인 확진자가 나왔다.

중남미는 대체로 검사 건수가 적고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현 지인은 물론 한인 중에서도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위중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고 병상도 모자라 한인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고령의 동포나 주재원의 어린 자녀 등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7월 2일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의 한 병원 앞에서 의료진이 촛불과 풍선을 들고 코로나19로 숨진 간호사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성업 중이던 브라질 상파울루시 봉쇄치로의 한인 상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멕시코 국경지역의 한 한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현지인 직원 한 명이 감기로 2주간 결근했는데 결국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여긴 검사도 제대로 안 이뤄질 뿐 아니라 치료도 받기 힘들어 남은 직원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박원규 콜롬비아 한인회장은 “유료로 검사를 받으려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2

주가 걸려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현지 의료 사정을 고려해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선 자체적으로 인공호흡기 등 의료용품 확보에 나서는 등 공관들도 재외국민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당장 생활고도 심해지고 있다. 중남미 한인 상당수가 의료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각국의 코로나19 봉쇄가 길어지면서 길게는 넉 달 가까이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정부가 생계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외국인인 한인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의료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3월 19일부터 가게 문을 못 열었다”면서 “그나마 정부가 직원 월급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수입이 0인 상황에서 비싼 월세와 직원들의 나머지 월급을 계속 내고 있다”고 말했다.

봉쇄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는 칠레에선 지난해 11월 시위 사태 때부터 한인들이 제대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모 씨는 “자기 소유 건물에서 장사를 하거나 자금 여유가 있던 사람,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돼 있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어려워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창]**

고미혜 연합뉴스 멕시코시티 특파원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 '조명희 전집' 증보판 출간

하바롭스크에서 작품 활동하며 솜한 인재 길러내



포석 조명희.

“낙동강 칠백리 길이길이 흐르는 물은 이곳에 이르러 곁가지 강물을 한몸에 뭉쳐서 바다로 향하여 나간다. 강을 따라 바둑판 같은 들이 바다를 향하여 아득하게 열려 있고 그 넓은 들 품안에는 무덤무덤의 마을이 여기저기 안겨 있다. 이 강과 이 들과 거기에 사는 인간-강은 길이길이 흘렀으며 인간도 길이길이 살아왔다. 이 강과 이 인간! 지금 그는 서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될 것인가?”

포석(抱石) 조명희(1894~1938)가 1927년 7월 '조선지광(朝鮮之光)'에 발표한 단편소설 '낙동강'의 첫 대목이다. 그의 대표작 '낙동강'은 일제강점기 저항문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프로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낙동강 어부의 아들로 자란 주인공 박성운이 일제의 갈대밭 강탈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자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기동 줄거리다.

조명희는 1923년 창작 희곡집 '김영일의 사(死)'와 1924년 창작 시집 '봄 잔디밭 위에'를 펴낸 근대문학의 선구자다. 1928년 소련 연해주로 망명했다가 하바롭스크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동포신문 '선봉'과 잡지 '노력자의 조국' 편집을 맡았다.

그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이자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항일의식을 일깨우고 솜한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산문시 '짓밟힌 고려', 장편소설 '붉은 깃발 아래서'와 '만주 빨치산' 등을 발표했다. 그가 직접 가르쳤거나 영향을 끼친 강태수·리시연·문금동·최영근·김부르크 등이 고려인 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고, 현경준이나 김학철 등 조선족 작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킬 때 사전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지도자급 인사 2천500여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명희도 9월 18일 일제 간첩 혐의를 쓰고 투옥돼 이듬해 5월 11일 총살됐다. 스탈린 사후 1956년 복권돼 누명을 벗었고 1958년 소련과학원이 '조명희 전집'을 출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조명희는 처형된 사람들과 함께 하바롭스크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무덤은 찾을 수 없고 기념비에 이름만 새겨져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조명희 문학기념비가 세워졌고 딸 조발렌티나가 주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나보이문학박물관에 조명희 기념실이 마련됐다. 고향 충북 진천에는 아들 조블리디미르의 기부로 2015년 조명희 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진천군은 1994년부터 해마다 포석 조명희 문학제를 열어 그의 항일 정신과 문학 세계를 기리고 있다.

포석기념사업회와 동양일보는 7월 15일 진천한울컨벤션웨딩홀에서 '포석 조명희 전집' 증보개정판 출간회를 개최했다. 1995년 펴낸 전집에 조명희의 미발표작과 전문가들의 평전·헌시를 추가해 모두 113편을 실었다. [▶](#)



'포석 조명희 전집' 증보개정판.



2015년 5월 14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서 '포석 조명희 문학관'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바른 말 고운 말

장사와 장수

‘장사’는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장수’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채 장사와 우산 장사라는 옛날이야기 들어봤니?”라는 문장에서 ‘부채 장사’와 ‘우산 장사’는 각각 ‘부채 장수’와 ‘우산 장수’로 바르잡아야 합니다.

‘장사’나 ‘장수’는 둘 다 우리 고유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 장사를 한다’거나 ‘그는 ~ 장수야’라고 하면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사업’이라든가 ‘상인’이라는 한자어를 쓰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붕어빵 장수 아들이 아버지 직업을 ‘수산업’이라고 돌려댔다는 우스개도 있죠. 우리의 정서가 배어 있는 ‘장사’와 ‘장수’를 더 자주 쓰기를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과반수(過半數)’는 말 그대로 ‘반이 넘는 수’를 말합니다. 한자 ‘과(過) 자가 ‘넘는다’, ‘지나치다’의 뜻이므로 ‘과반수 이상’이란 말은 ‘역전앞’과 같은 겹말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당선됐다”란 표현은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딱 절반일 때는 반수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해 더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와 “과반수 표를 얻어야 한다”는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이하’ 역시 그 수를 포함해 더 적은 수를 가리킵니다. 해당 수를 제외하고 그보다 적은 수를 말할 때는 ‘미만’이란 표현을 써야 합니다. ‘18세 이하’라고 하면 18세도 해당하지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18세를 제외한 17세까지를 뜻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가로 방향 열쇠

1.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
2. 경의선은 서울에서 이곳까지를 잇는 철도
4.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알림. 축구에서 심판이 노란 카드를 꺼내는 일.
6. 새로운 소식이나 해설, 논평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7. 밤 12시
8. 우리나라의 교육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일본의 행정기관. ‘○○성’
10. 유물과 유적을 통해 옛 인류의 생활과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
12. 우리나라 영문 국호의 어원이 된 나라
13. 물을 건너거나 높은 곳끼리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14.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일.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15. 커피나 음료, 가벼운 음식 등을 파는 가게
16. 시민의 휴식과 놀이 등을 위해 마련한 공공시설
17. 별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가리키기도 함
19. 호남선의 종착지. 전라남도 서남쪽 끝의 항구 도시
20.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만든 병. 음료를 담는 일회용 용기로 많이 쓰인다. ‘○○병’
21. 말을 기르는 곳
23.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25. 아이폰을 개발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26. 가수 유승준은 이것을 회피하려다 비난의 표적이 되었죠

27. 먹은 음식이 위에서 잘 소화되지 않아 생긴 가스가 입으로 복받쳐 나오는 일
28.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29.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 세로 방향 열쇠

1. 프랑스 파리의 개신교를 본떠 독립협회가 세운 기념물
2.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치게 하던 북
3. 중국 송나라 때 성행한 학문으로 성리학을 다르게 부르는 말
5. 주몽이 세운 고대국가. 백제, 신라와 함께 삼국시대를 형성했죠
9. 헝가리의 수도. 지난해 한국 관광객이 유람선 침몰 사고로 참변을 당한 곳이죠
11. 바다에 사는 가장 몸집이 큰 포유동물
12. 높은 곳에 있으면 꼭 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두려워하는 병
18.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스롱 피아비 선수가 활약하는 운동 종목
20. 14세기 유럽을 휩쓴 감염병. 흑사병이라고도 한다
2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코와 입을 가리도록 얼굴에 쓰는 것
22.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
24. 우륵은 가야금, 왕산악은 이 악기를 만들었죠

▶ 2020년 6월호 정답

정	상		농		호		자	석
궤	록		사	육	신		장	
옥	수	수	촌		정	면	도	
충	화		장		단	오		
충	효		학		무	모	피	
무			금	반	지		라	
공	수	거	뒋		지	어	미	
생	요		유	불	선		린	
일	도		녀				이	마

춘천교대와 '재외동포 이해교육 활성화' MOU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춘천교육대학교(총장 이환기)와 7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의 한우성 이사장과 김봉섭 전문위원, 춘천교대 이환기 총장·박미애 대외협력처장·추병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관련 내용의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영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 이해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수학습법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 재외동포 이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 이사장은 "대한민국 독립, 6·25 전쟁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에 재외동포의 기여가 엄청났음에도 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내국민과 재외동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족적 에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서 3번째)과 이환기 춘천교육대학교 총장(왼쪽에서 4번째)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주요 인물을 수록하기 시작했으며 재외동포 이해 제고를 위한 부처 협업형 고등학교 인정교과서 '세계 속의 한인'과 중학교 인정교과서 '동행해요! 세계 속의 한인'을 연내에 각각 발간·집필할 예정이다.

임직원 '덕분에 챌린지' 동참... "의료진에 감사"

재외동포재단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방역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월 16일 시작한 이 캠페인은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한 뒤 '#의료진 덕분에'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사이버대의 지목을 받은 재단 임직원은 7월 6일 제주본사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펼치고 사진과 함께 "더운 여름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저마다의 역할로 힘써주시는 재외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5천200만 내국민과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



한우성 이사장을 비롯한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이 7월 6일 제주본사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

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재단은 이어갈 주자로 한·아프리카 재단을 지목했다. [▶](#)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Zionism)



전후석

영화 '헤로니모' 감독
재미동포 변호사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수로 2천500년 동안 조국 없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 각자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갔다. 하지만 반유대정서(anti-semitism)는 늘 그들을 따라다녔고 탄압받고, 차별받는 현실에서 조국 시온의 복원을 꿈꾼다. 시온(Zion)이란 예루살렘 내의 언덕 중 하나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인의 땅을 의미한다.

20세기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을 겪은 후 전 세계의 여러 유대인은 하나로 뭉친다. 유대인 내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정치적 이념, 유대교 여러 교파가 있었지만 '온전한 시온의 복원'이라는 대의에 연대해 국제적 지지를 끌어냈고, 이들은 1948년 이스라엘을 재건국했다. 물론 시오니즘의 결과가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의 차별과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계급적 신분 사회로 나타난 것은 시오니즘의 한계일 것이다. 시오니즘이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보편적 인본주의로 승화되었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조금 더 평화로운 지역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시온을 복원했다면 한인 디아스포라들 역시 온전한 한반도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재외동포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한반도를 떠나 이제는 조국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아닌,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이자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재외동포를 인식하는 것이다. 평화 한반도를 위해 미국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면 특히 재미 한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역할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화적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는 재미 한인 정치인, 로비스트, 시민사회, 언론인 등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즉, 디아스포라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는 디아스포라가 스스로를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실 디아스포라들은 자신을 현지인, 혹은 한인 정도로만 인식하지 본인을 한인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조선족이나 고려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세계 전역의 한글학교와 한인 단체들에서도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을 공고히 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조국에 대한 일종의 사명 의식을 깨우는 계몽이 필요하다.

탈무드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서로를 돌볼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있다. 한반도의 내국인과 한인 디아스포라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통해 우리도 온전한 우리의 시온, '평화 한반도'가 복원되는 그날을 상상해본다. **한**

8·15 광복절 75주년 특별기획 재일동포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2014년 재일본민단중앙본부가 펴낸 이만호 저 '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에 실린 재일학도의용군 출정식 모습

재외동포재단은 뜻깊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의 탄압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기억에서 잊힌 진정한 영웅 재일동포를 주제로 5천200만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날 콘서트 실황은 KBS 1TV가 8월 15일 광복절 특집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70분간 방송합니다.

- **녹화 일시:** 2020년 8월 13일(목) 오후 7시~ (오후 5시 30분 입장)
- **장소:** KBS홀(서울 여의도)
- **형식:** 이야기가 있는 공연(다큐멘터리+쇼)
- **주최:** 재외동포재단

※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대응체계가 격상될 경우 공연 참석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경계인들의 목소리-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이선주(그린비)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구상에서는 이주와 디아스포라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주자들이 거주국에서 '시민'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 난관을 뚫고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도 사회의 편견과 자기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문학이란 창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들은 과연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와 현재, 연변이 낳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조선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조선족 재발견 한주(유아이북스)

조선족 아내와 사는 대한민국 청년이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조선족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연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책에서는 연변의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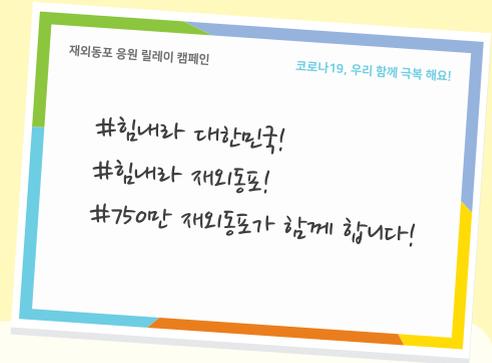
홍콩 한인 70년사 홍콩한인회

해방 후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모국 귀환을 위해 홍콩에 왔다가 이 가운데 40가구가 정착하면서 홍콩 한인의 역사가 시작됐다. 홍콩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온 수출 시장의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홍콩 한인 상당수는 무역업과 해운업에 종사하며 한국 상품의 동남아·중국 진출을 도왔다. 최근 중국 본토 송환법 반대 시위로 홍콩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자 2만여 한인의 존재도 주목받고 있다. 홍콩 한인들이 겪어온 70년 세월을 만나 보자.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 희망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가 주세요.

참여방법



* 자세한 참여방법은 [코리안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희망릴레이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 ▶ Tip 1 지목 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 ▶ Tip 2 피켓 출력이 어려운 경우, 도화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재외동포! (또는 거주국이나 단체명)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 합니다!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

캠페인 관련 문의 pms01@okf.or.kr



8.15 광복절 75주년 특별 기획

재일동포 특집 CONCERT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기억한다

뜻 깊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 6.25전쟁 참전, 산업화와 IMF 극복 등

조국의 위기와 시련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던 진정한 영웅

[재일동포]의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고자 5,200만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8월 15일 광복절 특집으로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방송 일시 | 2020년 8월 15일(토) 오후 5시 30분 ~ 6시 40분(KBS 1TV)

형 식 | 이야기가 있는 공연 (다큐 + 쇼)

주 최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